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중국의 강남(江南) 체험과 강남 형상*

박일용**

— <차 례> —

1. 서론
2. 중국 강남의 공간 지리와 지리적 심상
 - 1) 강남의 공간 지리와 한반도
 - 2)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강남의 지리적 심상
3. 반도인의 중국 강남 체험과 강남 형상
 - 1) 체류 체험과 강남 형상
 - 2) 사행 체험과 강남 형상
4. 결론

<국문초록>

조선시기 문인들에게 강남은 백거이(白居易)가 “강남은 좋은 곳(江南好)”이라 노래했듯이 아름다운 산수와 유구한 역사, 뛰어난 문화 그리고 부와 세속적 향락까지를 아우른 환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이비(二妃)와 굴원으로 표상되는 충절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주자가 <무이도가>(武夷權歌)에서 노래한 것처럼 강학을 하고 학문을 닦기에 이상적인 은일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기의 문학 작품에 중국 강남(江南)의 문화 지리적 심상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조선의 문인들에게는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상상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나라가 북경으로 도읍을 옮긴 1421년 이전에는 이들 공간이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길항적 역학 관계가 존재하던 역사적 현상이었으며, 새로운 문물

* 이 논문은 2009년 23회 한중 인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면 개고하여 새롭게 작성한 것임.

** 홍익대학교 교수.

수입의 창구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학문과 구도(求道)를 위한 ‘나루’ 같은 공간이었으며,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강남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던 시기 반도인의 다양한 강남 체험은, 중국과 한반도의 역학 관계, 중국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 그리고 개인의 처지에 따라 여러 형태로 형상화 되었다.

주제어 강남, 지리적 심상, 최치원, 김교각, 이세현, 박인량, 김부식, 정몽주, 정도전

1. 서론

‘싸이’라는 가수가 이른바 ‘말춤’을 추면서 부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뒤, ‘강남(江南)’이란 말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 물론, 여기서 ‘강남(江南)’ 그리고 ‘강남 스타일’은 우리 한강(漢江) 남쪽의 특정 지역과 그 지역으로 대변되는 말초적 소비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강(漢江) 남쪽의 ‘강남(江南)’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 우리에게 ‘강남(江南)’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이란 말처럼 대체로 중국의 양자강(揚子江) 유역을 뜻하는 말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고려 시기에는 전주(全州)·영주(瀛州; 지금의 고창으로 추정됨)·순주(淳州; 지금의 순창)·마주(馬州; 지금의 익산) 등 9주를 관할하는 강남도(江南道)라는 행정 구역이 설정되어 강남(江南)이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쪽 지방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¹⁾

그러나, ‘강남(江南)’이란 말은 대체로 중국의 양자강(揚子江) 중하류 남북 유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강남’은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억강남>(憶江南)에서 “강남은 좋더라

1) 신증동국여지승람 33권, 전라도, 한국고전 종합DB.

(江南好)”라고²⁾ 노래한 것처럼 아름다운 산수,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적 공간, 그리고 화려한 세속적 유흥 문화까지 고루 갖추어진 이상적 공간처럼 여겨져서, ‘강남’의 심상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까지 시인 묵객들에 의해 거듭 변주되어 왔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 ‘강남’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득히 먼 곳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도읍을 북경으로 옮기기(1421년) 이전까지는 한반도와 강남은 직접 오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원나라 지배 시기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대중국 교류 창구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또한 이 시기 반도인의 강남 거류 체험은 혼란 일이었으며, 사행 길에 강남을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공식적 접근이 허용되지 않게 된 조선 초기 이후에는 반도인에게 ‘강남’은 상상적인 공간으로서, 문화 지리적 심상을 매개로 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가운데, 문화 지리적 심상을 매개로 해서 수용된 ‘강남’의 형상에 대해서는 그간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³⁾ 반면, 강남에 접근이

2) 江南好 風景舊曾諳 日出江花紅似火 春來江水綠如藍 能不憶江南// 江南憶 最憶是杭州 山寺月中尋桂子 郡亭枕上看潮頭 何日更重遊// 江南憶 其次憶吳宮 吳酒一杯春竹葉 吳娃雙舞醉芙蓉 早晚復相逢 백낙천, <憶江南詞 三首>, 『白香山全集』, 卷六十七 律詩七十五首.

3) 예컨대, 굴원과 이비의 충절로 표상되는 악양과 동정호의 지리적 심상과 <황릉몽환기>,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주생전>, <위생전>, <적벽가> 등에 나타난 공간적 의미에 대한 성과, 산수시와 산수화의 전범처럼 여겨졌던 동정호 인근의 소상팔경을 노래한 한시 및 시가 그리고 <소상팔경도>에 대한 연구 성과들, 강남의 대표적 경승지로 조선 시기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되는 “서호”(西湖) 관련 시문들과 <서호도>들에 대한 논의들,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歌)와 그것의 변주로서 구곡가 계열 시가와 <무이구곡도>에 대한 연구 성과들, 동양적 이상향을 그린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파생된 무릉도원 관련 문학과 <도화원도>들에 대한 논의들, <귀거래사>와 <귀거래도>, <적벽부>와 <적벽도>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표류문학의 대표처럼 간주되어온 최부의 <표해록> 관련 논의 등은 모두 우리 고전 문학

허용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강남 체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한편, 중국의 ‘강남’은 지역적으로 광대할 뿐 아니라, 공간적 심상을 표상하는 지리, 문화, 역사적 요소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들이 표상하는 문화적 의미의 적층 과정 또한 복잡적이어서 전체적인 면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강남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여 중국 ‘강남’의 지리적 범주 그리고 중국 강남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국 강남의 문화 지리적 심상이 한국 고전문학에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는가를 개괄하기로 한다. 그리고, 반도인이 중국 강남에 체류하거나 사행을 하면서 겪은 강남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형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고전 문학에 나타난 중국의 ‘강남’ 형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빌미를 마련하기로 한다.

2. 중국 강남(江南)의 공간 지리와 지리적 심상

1) 강남의 공간 지리와 한반도

중국(中國)에서 강남(江南)은 통상 양자강(揚子江) 유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강남 문화는 중국 문화의 남상으로 알려진 황하(黃

또는 문화에 나타난 중국의 “강남” 형상과 관련된 대표적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4)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49집, 2012, 241-274쪽.

河) 유역을 중심으로 한 화하(華夏) 문화와 더불어 중화(中華) 문화를 대표하는 양 축으로 인식된다.

‘강남(江南)이라는 표현은 『사기(史記)』 <진기(秦記)>에 나오는 “양왕 삼십년에 촉의 태수 약이 초나라를 정벌하여 무군과 강남을 취하여 검중군을 만들었다”(襄王三十年 蜀守若伐楚 取巫郡及江南 爲黔中郡)는 기록이나,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에 “월나라는 이로부터 흩어져 제후의 여러 자제들이 다투어 일어서 혹은 왕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군이라 하기도 하면서 강남의 바닷가에서 초나라에 조공을 하였다”(越以此散 候子爭立 或爲王 或爲君 濱于江南海上)는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서경(書經)』에 나오는 우(禹)의 구주(九州) 가운데 양자강 중류 양안에 걸쳐 있던 형주(荊州)와 회수(淮水) 이남의 양자강 하류 양안에 걸친 양주(揚州)에 해당하는 곳이며, 춘추 시대에 초(楚)나라와 오·월(吳越)이 정립하던 곳이다.’ 이를 보면 춘추 시기 이전에 강남(江南)은 초(楚)나라의 운몽택(雲夢澤) 지역을 아우른 양자강 중류의 남북 유역, 그리고 하류의 오월(吳越)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三國) 정립 이후에는 양주 지역만을 지칭하는 강동, 강좌, 강표(江表)라는 말이 강서, 강우와 대비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나라의 정관기(貞觀期)에는 강남도(江南道)라는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양자강 이남에 서로 촉(蜀)과 경계를 두고 남으로 오령(五嶺) 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지칭하였으며, 개원(開元) 연간에는 현재의 강소(江蘇) 남부와 강서, 절강, 복건을 포함하는 강남 동도와 그 외의 강남 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송(宋)대에는 현재의 안휘 강소 남부의 강남 동로(東路)와 강서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서로(西路)로 그 범주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한편, 청(淸) 초에는 강남이라는 성명(省名)이 존재하였으나, 강

희(康熙) 연 간에는 강소 안휘의 두 성으로 나뉘어 행정 구역 명칭으로서의 강남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⁵⁾ 이렇게 보면, 강남(江南)은 애초 형초(荊楚) 지역과 오월(吳越) 지역을 아우르던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손오(孫吳) 정권이 확립되고 양주(揚洲) 지역의 정치 문화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심이 오월지역으로 이동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인 형초 문화는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지역을 포괄하는 장강 중류 지역의 문화로서 오늘날은 호상(湖湘) 문화로 지칭된다. 형초(荊楚) 문화는 북방의 화하(華夏) 문화와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서, 강희(江淮)와 형주(荊州) 지역에 있던 묘족(苗族)이 순(舜) 임금과 우(禹) 임금의 공격을 받아 몰려나 염황(炎黃) 계통인 축융의 후예와 결합되어 형성된 형초(荊楚) 즉 초(楚) 민족이 이룩한 문화이다. 이들은 한수(漢水) 유역과 장강 중류 유역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주(周)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⁶⁾

한편, 장강 하류 유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오월(吳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월 지역은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동부, 복건성, 광둥성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구오(句吳)와 우월(于越) 민족이 섞여서 농업 문화를 발달시켜왔는데, 상(商) 왕조 시기(B.C 17세기-B.C 11세기)에 지금의 항주(杭州) 서쪽에 월(越)나라가 등장했고, 서주(西周) 시기(B.C 11세기-B.C 770년)에 지금의 소주(蘇州) 북쪽과 태호(太湖) 동쪽 사이에 오(吳)나라가 등장했다. 두 제후국은 춘추시대에 와신상담(臥薪嘗膽)과 오월동주(吳越同舟)로 표현되는 원수 사이였으나, 전국시대에 월나라가 오

5) 김유철, 『위진남북조 시대 강남사회와 종족 문제』,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 교섭』, 집문당, 1997, 25쪽.

6) 권석환 외, 『형초-형초 지역을 찾아서』, 다락원 2004, 9-11쪽.; 김진영, 『중국 강남문학의 특성』,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2005, 64-94쪽.

나라를 평정함으로써 오월문화를 형성하였다⁷⁾

이들 가운데 이른 시기에는 장강 중류와 강회 지역을 포함하는 형초 문화가 세력을 떨치다가 초나라가 망하고 문화 중심이 오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남 문화를 형성하였다. ‘강남’은 장강 유역의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온난한 기후를 배경으로 신석기시대부터 벼농사가 발달해 식량이 풍부했으며, 장강과 전당강 그리고 회수 등의 큰 강과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천혜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강남’은 북방의 화하(華夏) 문화에 대응하여 ‘강남’ 문화를 형성하였다.

‘강남’ 지역이 특별히 문화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 시기였다. 남조는 북조에 비해 정치적 변화가 비교적 적었고, 경제 중심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청담(淸談)과 현학(玄學)을 지향하는 문인들이 모여들어 강남의 문풍이 흥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나라 초기부터는 상업자본과 문화 예술이 결합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 시서화(詩書畫)와 출판문화 정원문화가 강남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울려 꽃을 피웠다.

이러한 강남의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은 남경과 항주이다. 동오(東吳)의 수도였던 건업(建業) 즉 남경은 이후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그리고 송(宋) 제(齊) 양(梁) 진(陳) 즉 남조(南朝)와 남당(南唐) 그리고 명나라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기 전까지 명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항주는 남송과 오월국의 수도로서 역시 한동안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물론 역대 중국의 중심적인 나라들이 서안(西安) 낙양(洛陽) 북경(北京) 등 황하(黃河) 유역에 도읍을 정함으로써 정치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문화와 경제적 비중

7) 권석환 외, 『오월-오월 지역을 찾아서』, 다락원 2004, 9-10쪽.; 김진영, 『중국 강남문학의 특성』,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2005, 101-113쪽.

은 ‘강남’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남이 중국에서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강남’ 사이의 교류는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중세 이전에는 오늘날과 달리 문물의 교류가 해상 교통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 시기 이전의 중국과의 중심적인 문물 교류 창구는 ‘강남’이었다.

한반도와 중국의 교류사 연구에 의하면,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에는 세 가지의 항로가 이용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남양만의 당은포, 강화도, 덕적도, 대동강 하구 등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발해만을 거쳐 중국의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등주(登州;산동성 봉래)에 이르는 연안 항로로서,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육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 둘째는 낭혜화상비에 김흔(金昕)이 당은포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산동의 지부산(之罘山)에 도착했다고 한 것처럼, 서해를 건너 곧바로 등주(登州)로 향해하는 직항로로서, 황해에 거센 해류가 있기 때문에 항해술이 발달한 이후에야 개척된 항로라고 한다. 셋째는 흑산도를 지나 양자강 하구나 주산(舟山) 열도를 거쳐 영파(寧波)로 가는 남방 항로로서, 거리는 멀지만 계절풍과 해류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한반도에서 중국 강남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서 이른 시기부터 오랜 동안 이용되었다고 한다.

한반도와 중국 강남의 교류에서는 둘째와 셋째 특히 셋째 항로가 중요한데, 이 항로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강 하류지역에서 발달한 벼농사의 한반도 전파, 그리고 황해안을 따라 환상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전파를 이 항로와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중국의 남방과 한반도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내세우는 견해도 있으며,⁸⁾ 그리고 전라도 일대의 마한 사회와 남방 문화와의 관계를 주장

하는 학설이 제기되기도 했다.⁹⁾

그리고, 백제와 신라 그리고 후백제와 고려 시기 강남 지역과의 교류는 이 남방 항로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법흥왕 8년(521)년에 신라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 양나라에 입공한 사실, 가라국왕 하지가 409년에 남제(南齊)에 사신으로 갔던 사실, 신라의 각덕이 549년에 양나라 사신과 함께 불사리를 가져왔던 사실, 원광법사가 선편으로 금릉에 직행한 사실 등은, 일찍부터 남방 항로를 이용하여 강남과의 정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며, 『고려도경』에 소개된 보타도(普陀島)의 불궁거관음원(不肯去觀音院)에 대한 기록,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지역에 산재했던 신라방, 신라촌, 신라사, 신라산 등의 존재는 강남과 신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¹⁰⁾

그리고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중앙 정치에 진출하지 못했던 지방 세력이 해외에 진출해서 해상무역으로 활동 무대를 확대했는데,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 일본 이슬람 등과 교역한 장보고, 강주(康州;진주)의 왕봉규, 송악의 작제건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활동은 공적인 공무역에서 민간 무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한다.’ 이들의 주 활동 무대가 강남 지역임은 일본 승려 원인(圓因)의 <입당구법순례기>(入唐求法巡禮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라 하대의 교류 양상은 후삼국 시기까지 이어졌다.¹¹⁾

8) 毛昭晰, 『선진시대 중국 강남지역과 한반도의 해상교통』, 『한중 문화교류와 남방해로』, 국학자료원, 1997, 195-212쪽; 毛昭晰, 『절강 지식묘의 형태와 한반도 지식묘의 비교』,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반도의 교섭』, 집문당, 1997, 189-202쪽; 김병모, 『한반도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 『한국고고문화』 10,11합집, 1981, 55-78쪽.

9) 이광규, 『마한사회의 인류학적 고찰』, 『마한 백제문화사』12, 1990, 63-75쪽.

10) 김문경, 『7-10세기 신라와 강남의 문화교섭』,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반도의 교섭』, 집문당, 1997, 129-154쪽; 김문경, 『나말 후삼국의 대 중국 해상무역』,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33-60쪽.

신라와 중국 강남의 교류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이 문인들의 유학과 구법승들의 순례이다. 선덕왕 9년(640) 처음으로 당나라에 이른바 숙위학생(宿衛學生)의 이름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공과를 실시한 이후 더욱 많아져 당나라에 유학한 학생 수가 줄잡아 2000명 정도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당나라 유학생 가운데 직접 체류하면서 강남을 체험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학생들보다도 강남과의 문화교류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교의 교류이다. 이미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였으며, 수많은 구법승이 도해를 해서 불교를 수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특히 신라말 선종 승려들의 구법 수행은 중국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¹²⁾ 고려초의 천태학의 교류 또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라 시기의 입당 구법승은 확인된 사람만 해도 130명이나 된다. 그리고 원인(圓因)이 <입당구법기>에서 산동 적산촌의 신라의 승원인 법화원에 상주하던 승니가 27명이나 되었다고 한 걸 보면, 이 시기 얼마나 많은 승려가 입당하여 구법을 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송나라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외국승을 43명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2명이 신라승이며, 그 가운데 35-6명이 강남의 각지에서 선승(禪習)을 하였다고 한다.¹³⁾

11) 이우진, 『신라 하대의 시대 변천과 삼국의 정립』,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5-29쪽.

12) 『조당집』에서는 도의(道義)·혜철(慧哲)·홍척(洪陟)·현옥(玄昱)·범일(梵日)·무염(無染)·도윤(道允)·순지(順之) 등의 강남에서의 구법 행적이 실려 있어서, 이러한 통일신라 말기 한반도와 강남의 불교적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 『조당집』 2,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6, 237-263쪽.

그리고 이미 신라 시대에 중국에 유학하여 천태교의를 학습한 신라 선승들이 7명이나 되며 그 가운데는 하여 16대 조사인 보운존자(寶運尊者)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천태산에 이르는 길은 남방 항로를 이용하여 주산(舟山) 열도에서 태주(台州灣)만을 경유하여 영강(靈江)을 이용하는 길이 일찍부터 열려 나말 여초의 구법 승려와 상인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다’고 한다.¹⁴⁾ 이렇게 보면 한국의 불교사에서 강남의 남종선과 천태종의 영향은 주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기 중국의 ‘강남’ 지역과의 교류에서 송나라의 개국 초기에는 등주(登州) 밀주(密州)를 거치는 황해 횡단 항로를 주로 이용하다가, 1074년부터 요(遼)나라를 의식하면서 남방 항로로 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광주, 명주, 천주에 시박사가 설립되어 사행이 오갔을 뿐 아니라 민간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는 명주(明州)를 출발하여 대사도(大謝島;영파)를 거쳐 매잠(梅岑;보타도), 협계산(夾界山;소흑산도), 흑산도, 죽도(竹島;위도), 군산도, 안흥 등을 거쳐 한강 예성강으로 들어가 상륙해서 개성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13) 김문경, 『7-10세기 신라와 강남의 문화교섭』,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 교섭』, 집문당, 1997, 140-147쪽.

14)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에는 신라의 법용, 이응, 순영 등이 구법을 했으며, 도육은 천태산 만년사에서 구법을 하고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라계(螺溪) 전교원은 의적(義寂)이 주석하던 곳인데 오월 시대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원으로서, 의통(義通)은 이곳에서 천태학의 거목으로 성장하였으며, 체관(諦觀)은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의천은 강남의 여러 절을 순방하고 항주에 고려사를 건립하고 금탑(金塔)을 세워 기적을 표하였으며, 돌아와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조영록, 『도해구법승의 강남 각지의 발자취』,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31-192쪽.; 楊渭生, 『천태종과 고려』,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 교섭』, 집문당, 1997, 241-292쪽.

15) 祁福富, 『10-11세기 한중 해상교통로』, 『한중 문화교류와 남방해로』, 국학자료원,

그런데, 원나라 지배 시기에는 중국 남방과의 교류가 소강상태를 유지한 뒤, 명나라가 개국되어 남경에 수도를 정하였다가 북경으로 옮기기 전인 1368년부터 1421년까지는 해로를 이용한 강남과의 소통이 잠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는 공식적으로는 온전히 중국의 강남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 결과, 조선조 세종 시기 이후에는 중국의 강남은 역사와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은 표류(漂流)라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강남’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세종 시기 이전과 지리적 심상을 통해 상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세종 시기 이후에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2)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강남의 지리적 심상

중국의 ‘강남’에는 우리 고전문학에 전형적인 문화적 표상 공간으로 인식되던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하는 동정호와 그곳으로 흘러드는 소수(瀟水) 상수(湘水) 원수(沅水) 유역의 운몽(雲夢) 지역,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산(衡山)과 여산(廬山) 그리고 강회(江淮)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른 시기 형초 문화는 굴원(屈原)과 초사(楚辭)로 대변된다.

『사기』<굴원(屈原)·가생(賈生) 열전>에 소개된 것처럼 동정호(洞庭湖)의 북쪽 악양(岳陽)과 먹라수(汨羅水)는 충신이자 불멸의 시인인 굴원이 방축되어 문학 활동을 하다가 절사를 한 곳이며, 한(漢)나라 시기에 가의(賈誼)가 장사(長沙)로 폄직되어 왔다가 굴원을 조상하는 <조굴원(弔屈原)>과 <북조부(鵬鳥賦)>를 지은 곳이다. 굴원은, 초(楚) 나라의

민간 시풍을 받아들여 근심과 억울함 동경과 희망 등을 표현하면서, 시편 속에 초지역의 신화와 전설 역사와 고사 등을 표현하였다. <천문(天問)> <이소(離騷)> <구가(九歌)> <어부(漁父)> 등 굴원의 초사는 남방 문학을 대표하는 낭만적 문학으로 부(賦), 변려문(駢儷文) 등 중국 문학의 모든 장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선 시기 이전의 문인들에게도 굴원의 작품이 삼국시대부터 널리 읽혀져, 사 작품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으며, 송강의 <사미인곡>으로 대표되는 바 수많은 시가에 사미인(思美人) 심상, 또는 은자(隱者)의 심상으로서의 어부(漁夫) 형상 등으로 재창조되어 나타났다.

한편, 이 지역은 이른바 상군(湘君)으로 알려진 이비(二妃)와 관련된 심상으로 대변되는 지역이다. 굴원(屈原; B.C 345?-295?)은 이를, “원수와 상수 물결 잠재우고(令沅湘兮無派) 장강물 고요히 흐르게 하소서(使江水兮安流) 부군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데(望夫君兮未來) 저 통소 소리는 누구를 생각하나(吹參差兮誰思)”¹⁶⁾ 또는 “북쪽 물가로 내려오시는 신령이여(帝子降于北渚) 아득히 바라보니 내 마음 슬퍼라(目眇眇兮愁兮) 살랑거리는 가을바람(嫋嫋兮秋風) 동정호 물결에 낙엽이 지네(洞庭波兮木葉下)”¹⁷⁾라고 노래하였으며, 유향(劉向; B.C77-B.C6)이 “순임금은 이 지방을 순수하시다 창오산에서 돌아가셨으며 호를 중화라 한다. 이 비는 장강과 상수 사이에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상군부인이라 한다”(舜陟方死于蒼梧 號曰重華 二妃死于江湘之間 俗謂之湘君)고 했던 것처럼, 이 소상강 동정호 유역은 이비가 순임금을 따라 순절한 지역으로 기억되어,¹⁸⁾ 유종원(柳宗元; 773 - 819)이 “순이 창오(蒼梧)의

16) 굴원, <상군(湘君)>, 기세춘, 신영복편, 『중국역대시가선집』1, 돌베개, 1994, 300-301쪽.

17) 굴원, <상부인(湘夫人)>, 기세춘, 신영복편, 『중국역대시가선집』1, 돌베개, 1994, 304-305쪽.

들에서 사망하자, 이비 또한 신령이 되어 돌아가지 못해서, 이곳 물가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예로부터 변함없는 관례가 되었다.”(帝既野死, 神亦不返. 食于茲川, 古有常典)¹⁹⁾고 서술하고, 한유(韓愈:768-824)가 이비(二妃)에 대한 문학적 기록을 점검한 뒤, ‘순임금을 곤액에서 벗어나 왕이 되게 한 것이 이비의 힘이니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²⁰⁾고 이야기하였듯이, 이 지역에서는 영주(永州)의 상원(湘源:현재의 상음현)과 동정호 내의 군산(君山)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왔다.

이러한 이비의 심상과 굴원의 심상이 겹쳐지면서, 조선의 문인들에게는 이 지역이 충절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이비(二妃) 고사가 <황릉몽환기(皇陵夢幻記)>라는 단독 소설 작품으로 창작되었을 뿐 아니라, 소상팔경(瀟湘八景) 가운데 소상야우(瀟湘夜雨) 형상과 겹쳐지면서, 수많은 소설, 판소리, 시가 작품에 충절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꿈에 위로를 받는 것도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이며, 심청이 인당수로 팔려가다 동정호 부근을 지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이비와 굴원이다. 또한 송강(松江)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화자가 처해 있는 곳도 소상남반(瀟湘南畔)으로 비유된 바 있다.²¹⁾

18) 劉向, 『列女傳』, <有虞二妃>條.

19) <상원이비묘비>(湘源二妃廟碑), 『유종원집(柳宗元集)』제5권 비(碑).

20) “以此謂舜死蒼梧, 於時二妃從之不及而溺死者, 皆不可信. 二妃既日以謀語舜, 脫舜之厄, 成舜之聖, 堯死而舜有天下, 爲天子, 二妃之力. 宜常爲神, 食民之祭. 今之渡湘江者, 莫敢不進禮廟下” <黃陵廟>『한유전집』卷31 碑.

21) 우쾌제,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1, 한국고소설학회, 1995, 263-302쪽;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245-271쪽; 김중근, 『고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 수용의 심리적요인』, 『문학치료연구』2집, 문학치료학회, 144-167쪽;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학연구』36,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41-165쪽.

한편, 17세기의 전기소설 <주생전>(周生傳)과 <위생전>(韋生傳)에 서는 이러한 지리적 심상이 작품의 핵심적 요소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주생전>은 권필(權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생전>은 권필의 작이라 가탁(假託)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으로, 구성이 유사하다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강남(江南)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상반된 형상을 그린 것들로서, 조선 문인의 중국 강남(江南)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들 작품에 대비적으로 형상화된 신성한 이념적 공간으로서 장강 중류 동정호 주변과 현실적 공간으로서 부(富)와 세속적 욕망이 넘치는 전당강 하류 유역 전당(錢塘)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구운몽>과 <옥루몽>, 그리고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 록>에 더욱 증폭된 형태로 나타난다.²²⁾

또, 이 지역은 이른바 소상팔경 형상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송나라의 이영구(李營邱, 919~967)와 송적(宋迪, 1014~1083)이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그리고, 미불(米芾, 1051~1107)이 <소상팔경도시명서>(瀟湘八景圖并書)를 쓴 후 중국 뿐 아니라, 조선의 문인 화사들은 다 투어 소상팔경시를 짓고 <소상팔경도>를 그려서, 고려 이후 산수시와 산수화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전하는 소상팔경을 제재로 한 한시는 500수를 상회하며, 이인로(1152~1220), 이규보(1168~1241) 등 고려의 문인에서부터 조선 시대의 군왕 성종, 숙종, 정조를 위시해서 조선 말기의 김시락(1857~1896) 까지 무려 40여명의 시인들이 소상팔경을 제재로 한 시를 지었다 한다.²³⁾ 또한 소상팔경 형상은 한시나

22) 박일용, 「<주생전>의 페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적 의미」, 『문학치료연구』26집, 2013, 161-203쪽;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35집, 2013, 139-166쪽.

23) 정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논문, 2006.

산수화뿐 아니라, 시조, 가시, 판소리, 단가, 민요, 무가, 시화 등 모든 장르에 거듭 수용되어 하나의 전형적인 문학적 심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동정호로 흘러드는 원수(沅水) 유역의 무릉(武陵)을 배경으로 하여 도연명(陶淵明;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형상화된 무릉도원(武陵桃源) 형상은 이상적 공간을 상징하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지리적 심상으로 자리 잡아, 중국의 시인 목객과 화가뿐 아니라, 고려 조선의 문인과 화가들에게 수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변주를 보였다.²⁴⁾

장강의 중상류가 형초 문화로 표상되는 지역이라면, 장강의 하류는 오월(吳越) 문화로 표상되는 지역이다. 조선 문인에게 부차와 구천 그리고 서시와 오자서 등의 고사로 각인된 오월(吳越) 지역은, 동진(東晉)(317~428) 이후 남조가 건강(建康;남경)에 도읍을 정하고, 당나라(618~907)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또, 남당(南唐, 937~75)이 금릉(金陵)에, 그리고 오월(吳越, 907~78)이 항주에 도읍을 하고, 남송(1127~1279)이 임안(臨安, 항주)에 도읍하면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홍무제(1368~98)가 남경에 도읍하면서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많은 하천과 크고 작은 호수가 있어 강과 호수 사이에 수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향(水鄉) 즉 물의 도시를 형성하여 이를 배경으로 잠업, 견직업, 염업 등의 상업 경제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풍요로운 경제력을 배경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구축하였는데, 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일종의 문예적 결사인 아회(雅會)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동진(東晉) 시대에 왕희지(王羲之)는 소흥(紹興)의 회계산 난

24) 김상홍, 『동아시아의 이상향 무릉도원』, 『동아시아 고대학』1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2006, 263-297쪽.; 김석희, 『무릉도원 형상화의 유형과 그 함의』, 『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2008, 65-88쪽.

정(蘭亭)에서 명사 42인을 모아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하면서, ‘마음 속의 정서를 펼치고’(暢敘幽情) ‘우러러 우주의 위대함을 살피며’(仰觀宇宙之大) ‘굽어서 만물의 풍성함을 살피는’(俯察品類之盛) 마음으로 시를 지었다. 이로부터 회야 문화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어 술 한 잔에 시 한수를 읊는(一觴一詠) 전통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승려 혜원(慧遠)은 여산(廬山)에서 뇌차종(雷次宗) 등 선비 6명 및 승려 12명과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조직하였으며, 사령운(謝靈運) 등은 사우지회(四友之會)를, 그리고 송나라 때 황산곡(黃山谷) 진사도(陳師道) 등은 강서시사(江西詩社)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강남의 아회 문화는 명나라 시대 항주(杭州)의 서호팔회(西湖八會) 등으로 이어지면서²⁵⁾ 낭만적인 문예 창작 전통을 이어갔다. 고려시대의 선풍 진작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수선사나 백련사, 그리고 조선 전기의 안평대군의 시사 운영이나 조선후기 위향 문인들의 시사 운동 등은 이러한 강남의 아회(雅會) 문화와 일정하게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강 하류 지역 가운데 17세기 이후 조선의 문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 서호(西湖)이다. 서호(西湖)는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가 유포되어 서호 열풍이 일기 전부터, 서호의 고산(孤山)에 초옥을 짓고 평생을 매화와 학을 벗삼아 살았다는 임포(林逋)나 서호의 제방을 쌓았다는 소식 또는 백거이 등을 매개로 고려 시대부터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특히 <산원소매(山園小梅)>의 “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의 시구로 유명한 임포의 은일(隱逸)은 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한시와 <방학도>(放鶴圖) 또는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 등의 그림으로 형상화되었다.

25) 권석환, 「중국 강남 지역 아회 문화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 연구』32집, 2006, 143-166쪽.

한편, 전여성(田汝成)이 1547년에 편찬한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는 제왕에서부터 명인 일사 술기(術技) 위항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호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기술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미 17세기에 조선에 들어와 널리 읽혀지면서, 양사언, 신희, 백광훈 등 수많은 시인들이 <서호도발>(西湖圖跋)과 서호 관련시를 썼다. 그리고 전당(錢塘)과 절강(浙江)을 제재로 한 시들도 거듭 지어졌다. 이러한 서호 열풍은 공간 개념의 전이로 이어져 문인들은 마포 서강 양화도 부근을 서호(西湖)로 명명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서호(西湖)에서 은일한 임포의 삶과 겹쳐 인식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이곳은 선유처(仙遊處)로 이름났는데, 17세기에는 권필, 유몽인, 이지함, 이기설, 성로 등이 서호로 은거하였으며, 이러한 은거지로서의 서호의 형상이 허강의 <서호별곡>, 성녀학의 <서호곡> 등에²⁶⁾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송대 성리학자 주희(朱熹)는 만년에 지금의 복건성 무이산(武夷山)에 무이정사를 건립하고 강학을 하면서 <무이정사 잡영> 12수를 지어 무이정사 주변 풍경과 생활을 기록하였고, <무이도가>(武夷權歌) 10수를 지었다. 이러한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는 고려 말부터 우리 문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무이도>(武夷圖)를 구하여 와유(臥遊)의 소재로 삼는가 하면, <무이도가>(武夷權歌)에 차운하여 시를 짓거나, 무이도가에 대한 해석과 비평을 하기도 했으며, 무이구곡을 모방하여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가를 짓는 등 무이 구곡의 지리적 심상은 조선의 문인들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리 잡았다.²⁷⁾

26) 정민, 『167세기 문인 지식층의 강남 열풍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22, 2002, 281-306쪽.

27) 이효숙, 주선시대 무이도가 수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논집 43집, 2010, 243-266쪽.; 이민홍,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립파문학의 일 양상-퇴계, 하서, 고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6권, 1982, 25-44쪽.; 이민홍, 『사립파의 무이도가 수용에 대하여-도교적 전설과 제도적 부회』, 『도남학보』7,8권, 1985, 28-45쪽.

한편, <고려도경>에는 “옛날 신라(新羅)의 상인이 오대산(五臺山)에 가서 그곳의 관음상을 자기 나라로 싣고 돌아가려고 바다로 나갔더니 암초를 만나 배가 달라붙고 전진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 암초 위에다 관음상을 놓으니, 보타원의 중인 종악(宗岳)이라는 자가 맞아다 그 절에 봉안하였다. 그 뒤부터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이 왕래할 때는 반드시 가서 복을 빌었고 그렇게 하면 감응하지 않는 예가 없다.”는 기록이 있는데, 보타산 조음동의 관음전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다.

그 외에도 신라나 고려인이 보타암에 참배한 기록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제현은 충숙왕을 호종하고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 지방을 유람하고 보타산(寶陀山)에 이르렀다가 돌아왔으며, 돌아본 산천의 좋은 경치를 기록하여 행록(行錄) 한 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유영(1801~1874)의 <육미당기>(六美堂記)에는 신라 소성왕 시대에 아버지의 병을 구하기 위해 왕자 소선이 보타암의 천년 묵은 자죽(紫竹) 영순(靈筍)을 구하러 보타도에 가는 걸로 그려진다. 소선은 갖은 고난을 겪고 보타도에 이르러 사슴의 안내로 해운암(海雲庵)을 찾고, 도사를 만나 자죽순을 구하여 돌아온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세자 정에게 자죽순을 빼앗기고 눈이 먼 채 다시 보타도에 표류하여 자죽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다가, 유구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백문현의 구원을 입게 되고, 그의 딸 운영과 혼약을 한다. 그 뒤 운영을 탐내는 배득량의 참소로 소선과 백문현 일가가 헤어지고, 운영 역시 여러 곡절을 거친 뒤 보타도 해운암에 표류하여 도사에게서 선가의 도를 배운 소선과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고려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와 강남 교류의 관문이었던 보타도가 강남과의 교류가 중단된 조선 후기에 신비한 상상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절강성(浙江省) 정해현(定海縣)에 보타암이 있고 거기에 대사상이 있는데, 화만(華鬘)이 천연스럽고 죽림

(竹林)·앵무(鸚鵡)·선재(善財)·용녀(龍女)의 형상도 모두 다양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설한 보타암(普陀巖)의 관음대사상(觀音大士像)에 대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서유영이 보타도를 환상적인 소설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시인 묵객들의 입에 오르내린 악양루, 봉황대, 황학루 등의 강남 지역의 누대는 그것들을 노래한 누정기와 시들을 매개로 하여 조선의 시인 문객들에게 강렬한 문화적 심상으로 자리 잡아 오랜 동안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처럼 강남의 지역적 공간은 다양한 역사 문화적 심상과 결부되어 한반도의 문인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강남과의 교섭이 금지된 조선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강력한 문화 지리적 심상으로 굳어져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3. 반도인의 중국 강남 체험과 강남 형상

1) 체류 체험과 강남 형상

우리 선조들의 공식적인 중국 체류 체험은 당(唐)나라 시기 숙위 유학생과 구법승들의 구도 유학 그리고, 원나라 지배시기 유학과 과거를 통한 관료 체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나라 지배기에는 수도가 연경에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에 체류한 고려인들이 중국의 ‘강남’을 체험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통일신라 후기부터 후삼국 시기와 고려 초에는 강남을 통해 선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에 체류하면서 강남을 체험한 사례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료들은 일실되어 남겨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는 알려진 자료를

간추려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강남에서의 거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인물로 최치원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은 빈공과에 급제하여 올수(溧水) 현위를 하고, 회남 절도사 고변(高駢)의 추천으로 회남관역순관(淮南館驛巡官)을 하였으며, 그 후 고변의 막하에서 종사관을 하는 등 수학기 이후 대부분을 강남에서 지냈다. 『계원필경집』에 실린 대부분의 시문이 강남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으로서 그의 강남 체험을 표현한 시(詩) 가운데 <강남녀(江南女)>와 <윤주 자화사 상방에 올라(登潤州慈和寺上房)>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강남녀>에서는 ‘제멋대로 자란 여인들이 바느질 등은 배우지 않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악기나 통기고 방탕한 노래나 부르면서 부지런히 베를 짜는 이웃집 여인들을 조롱하는’ 강남 여인들의 방탕한 세태를 풍자한다.²⁸⁾ 남조를 거쳐 수당에 이르면서 ‘강남의 양주 광주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하여 일본 신라 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들끓어, 이들을 통해 서방에서 수입되는 진귀한 물품들이 넘쳤으며, 그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다양성으로 양주가 천하제일이라는 양일(揚一)이라는 속어도 생겨났으며, 거리에는 외국 상인이 넘쳐나고 춤과 노래로 흥청거리는 국제적 환락의 도시로 일컬어졌다’고도 한다.²⁹⁾ <강남녀>에 그려진 세태는 이러한 강남의 도시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화려하고 사치스런 도시 문화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최치원의 소외 의식이 투사된 것이다.

28) 江南蕩風俗 養女嬌且憐 性冶恥針線 粧成調管絃 所學非雅音 多被春心牽 自謂芳華色 長占艷陽年 却笑隣舍女 終朝弄機杼 機杼縱勞身 羅衣不到汝 <강남녀(江南女)>, 국역 『고운집』 제1권 시(詩).

29) 김문경, 『이슬람상인과의 교역』,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63-69쪽.

<윤주 자화사 상방에 올라(登潤州慈和寺上房)> 역시 강남을 떠돌면서 최치원이 느낀 자의식을 표현한 시이다.³⁰⁾ 윤주(潤州)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진강시(鎮江市)에 위치했던 도시이다. 여기서 최치원은 해외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진세의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강남 천지를 떠돌던 중,³¹⁾ 자화사에 올라 자신과 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선방에 올라 오월동주(吳越同舟)와 와신상담(臥薪嘗膽)으로 표현되는 오(吳)·월(越)의 쟁패와 삼국의 전란, 동진(東晉)과 송(宋)·제(齊)·양(梁)·진(陳)을 거치는 남조의 부침, 그리고 수(隨)의 멸망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역사의 흥망 속에서 ‘조석으로 전장의 뿔피리 소리를 듣다’가 명멸해간 영웅들, 그리고 문명을 떨치다가도 ‘푸른 산그늘에 이름이 묻힌’ 무수한 인재들을 떠올리면서, 그 대열에 끼어보고자 분주히 뛰어다니던 자신을 거리를 두고 바라본 것이다. 그러다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비빈(妃嬪)들에게 새로 지은 시에 곡을 부쳐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매일을 보내다가 나라를 망친 진(陳)의 후주(後主) 같은 제왕은 사라졌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강남의 봄빛을 발견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 그리하여 이웃 도시 선성(宣城) 태수를 지내면서 “강남은 아름다운 땅, 금릉이 바로 제왕의

30) 登臨甕隔路歧塵 吟想興亡恨益新 畫角聲中朝暮浪 青山影裏古今人 霜摧玉樹花無主 風暖金陵艸自春 賴有謝家餘境在 長教詩客爽精神 <윤주 자화사 상방에 올라(登潤州慈和寺上房)>, 국역『고운집』 제1권 시(詩).

31) 최치원의 이러한 모습은 “모(某)는 썩은 지푸라기와 같아서 기멸 곳이 없고, 뿌리 잘린 쑥대와 같아서 혼자 수고로울 뿐입니다. 줄곧 달려 보지만 진토(塵土)를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가는 길에 기로(岐路)를 만나면 더욱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멀리 절박한 심정을 안고서 오로지 밝으신 거울 앞으로 달려갔던 것인데, 피리 소리는 참람스러울까 두려웠고 거문고 곡조는 공연히 슬프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군(將軍)께서 모가 이향(異鄉)에서 와서 유도(儒道)에 정진한다고 생각하시고는, 곡진하게 이끌어 주신 덕분에 헌투(獻投)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고 한 <객장에게 준 글(與客將書)>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객장에게 준 글(與客將書)>, 『계원필경집』 제19권 잡서(雜書).

고을이라네”(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라고 노래한, 남조 제(齊)의 저명한 시인 사조(謝朓)의 시구를 떠올리면서, 강남의 봄 풍경으로 우울한 심사를 씻어낸다.

이들 시가 문인 최치원의 강남 체험을 노래한 경우라면, <동자가 산을 내려가는 것을 전송하다(送童子下山)>는 승려 김교각이 자신의 수행 체험을 노래한 것이다.³²⁾ 신라국의 왕자로서 강남 구화산(九華山)에 와서 수도를 하여 지장성지를 이룩한 김교각(金喬覺)의 체험은 구법 승려의 대표적인 강남 체험이라 할 수 있다.

구화산은 지금의 안휘성에 있으며 그 산세가 북쪽으로는 양자강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황산(黃山)에 이어지는 산이다. ‘개원(712-739) 말에 구화산에 들어와서 간고한 생활 속에서도 불타는 수행 자세를 보여준 그에게 그곳 사람들은 선거(禪居)를 마련해 주어 화성사(化成寺)란 사액을 받아냈다고 한다.³³⁾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신라 승려들이 몰려왔지만 입을 것이 없어서 백토를 먹으면서 수행을 하자, 그곳 사람들은 이들을 고고중(枯槁衆)이라며 받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정원 10년(794)에 입적을 하니 산이 울고 돌이 굴렀고,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삼년 뒤 육신을 입탑(入塔)할 때도 신색이 산 사람 같았고 뼈마디에서 쇠사슬 소리가 나는 등, 지장경에 나오는 보살의 현신을 방불케 해서 지장보살로 받들렸다고 한다.’³⁴⁾

<동자가 산을 내려가는 것을 전송하다(送童子下山)>는 이처럼 지장보살로 추앙받았던 김교각의 수행 과정의 청정심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32) 空門寂寞汝思家 禮別雲房下九華 愛向竹欄騎竹馬 懶於金地聚金沙 添瓶澗底休招月 烹茗甌中罷弄花 好去不須頻下淚 한치운, 『해동역사』제47권, 예문지(藝文志) 6.

33) 구화산(九華山)은 지금의 안휘성(安徽城) 지주시(池州市)에 소재한다.

34) 조영록, 『도해구법승의 강남 각지의 발자취』,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34-136쪽.

이 시는 겉으로는 단순히 구화산에서 수행을 그만두고 떠나는 동자를 송별하는 내용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수양 도량으로서의 구화산과 세속 사이의 진·속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고 넘어서지 못하는 미묘한 마음의 경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어린 아이의 집에 대한 그리움(思家)과 그러한 그리움 너머의 세계인 구화산의 운방(九華雲房), 그리고 ‘금지(金池)에서 금사(金沙)를 캐는 일’에 비유된 불도 수련의 이상과 ‘대나무 난간에서 천진하게 죽마를 타는’ 어린 아이의 욕망이 대조된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그럭거리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 ‘물 길던 샘에서 달을 부르거나 차 다리던 단지 속에 꽃잎을 넣으면서 즐거워하던’ 산사의 생활과 대조된다.

여기서 동자의 생활은 곧 속세를 떠난 수도승 김지장 자신의 모습이며, “눈물 짓지 말고 잘 내려가거라 늙은 나야 연하(煙霞)를 벗하면 되지 않겠니”라는 노승의 당부의 말은, 속세의 인연에 대한 실낱같은 미련조차 끊어내려는 김지장 자신의 칼날 같은 수련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이는 백토를 먹으면서도 정진을 멈추지 않은 용맹 정진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 그는 입적한지 삼년이 지나서도 살아있는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 지장보살로 추앙을 받게 된 것이다.

세속인에게 강남은 ‘강남은 아름다운 땅, 금릉이 바로 제왕의 고을이라네’(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라고 노래되는 곳으로서, ‘진세(塵世)의 나루’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지만,³⁵⁾ 선승들에게는 이렇게 천진한 욕망조차 끊고서 고요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나루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 것이

35) 최치원은 <진정 상태위(陳情上太尉)>에서 “해내서 누가 해외 사람을 어여삐 여기오리(海內誰憐海外人) 나루를 묻노니 어디가 통하는 나루이든지(問津何處是通津) 본디 녹을 구함일 뿐 이를 구함은 아니요(本求食祿非求利) 다만 아버지 빛내려 할 뿐 제 몸 위함 아니로세(只爲榮親不爲身)라고 노래한 바 있다. <진정 상태위(陳情上太尉)>, 『계원필경집』 제20권, 시(詩).

다. 학문을 닦아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는 구도승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중국 그리고 강남으로 모여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강남까지 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었다.

대세(大世)가 담수(談水)에게 “신라 같은 산골에서 일생을 마친다는 것은, 연못의 고기가 산림의 크기를 모르고, 새장의 새가 바다의 넓음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장차 뗏목을 타고 바다를 지나 오나라 월나라로 가서 스승을 찾을 것이며, 명산에서 도를 구할 것이다. 만약 속된 자세를 바꿀 수 있거나 신선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표표하게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아다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신기한 노름이요, 장관일 것이다. 그대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제의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다시 구칠(九柒)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떠난 뒤, “그 후로 그들이 간 곳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한³⁶⁾ 『삼국사기』의 기사는, 당시 ‘강남’으로의 구법 여행이 당대인에게 얼마나 환상적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얼마나 험난한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강남에 도달해서도 수행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조당집(祖堂集)』에 수록된 범일국사의 고행담 등의 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³⁷⁾ 범일 같은 대선사는 그와 같은 고행을 겪고 나서 득도를 했지만,

3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9년.

37) 그 뒤로 행각(行脚)을 다니다가 멀리 서울에 들르니 때마침 회창(會昌) 사년의 사태(沙汰)를 만나 중들은 흩어지고 절은 무너져서 동분서주하여 숨을 곳이 없었는데 때마침 하백의 인도로 따라가다가 산신의 마중을 받아 상산(商山)에 숨어서 홀로 선정(禪定)을 닦는데 떨어진 과일을 주워 배를 채우고 흐르는 냇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니, 행색이 바짝 마르고 기력이 부쳐서 감히 길을 수가 없게 된 채로 반해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떠나시지요” 이에, 억지로 걸으려 했으나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더니 어느 곁에 짐승들이 떡과 먹을 것을 물어다가 자리 옆에다 던지니 일부러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워 먹었다. 나중에 맹세하기를 소주(韶州)에 가서 조사의 탑에 예배하리라 하고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조계에 다다르니, 향기 어린 구름이 탑묘(塔廟)앞에 서리고 신령한 학이 훌쩍

구칠이나 대세처럼 사라진 구법승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구화산에 모여들어 백토를 먹으면서 수도를 하던 신라 승려들과 같은 사람들의 흔적을 추적하여 강남 형상의 또 다른 면모를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나라 지배시기에 중국에 체류하면서 강남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익제 이제현이다. 이제현은 1314년에 충선왕의 부름으로 연경에 들어가 만권당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다가 1316년에 충선왕을 대신하여 3개월 동안 서촉(西蜀)의 아미산(峨眉山)에 치제(致祭)를 하러 다녀왔으며, 3년 뒤인 1319년에는 강남(江南)에 강향사(降香使)로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여 보타도까지 다녀오기도 하였다.³⁸⁾ 이들 여행에서 이제현은 강남 체험을 담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다경루(多景樓)>라는 시는 지금의 진강시(鎮江市)가 있는 운주를 배경으로 한 시이다. 최치원이 여기서 강남 지역의 흥망의 역사를 상고했듯이, 이제현 역시 시간을 과거로 돌려 ‘양자강 나루인 운주에서(楊子津南古潤州) 환락과 근심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던가(幾番歡樂幾番愁)’라고 하여 강남 지역에 되풀이 된 흥망의 역사를 상고한다. 그리고 ‘아침하하는 신하는 물고기가 먹이 탐하듯 정사를 하고(佞臣謀國魚貪餌) 간사한 아전에 근심하는 백성은 새가 먹이를 바치듯 했겠지(黠吏憂民鳥養羞)’라고 하여, 그러한 흥망이 탐관오리의 아침과 탐학 때문에 되풀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어서, ‘풍경 소리 울리자 나루에 조수가 밀려오고(風鐸夜喧潮入浦)

날아 와서 누대(樓臺) 위에서 지저귀니 절의 대종(大中)이 모두 이렇게 수근거렸다.
한글대장경『조당집』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86, 243-244쪽.

38) 『익재집』, <익재선생 연보>.

저녁 안개 끼는데 도롱이 두르고 섰으니 누대에 빗방울 드리치누나(煙蕪
暝立雨侵樓)라고 노래하여, 조수가 밀려드는 운주 포구를 바라보면서 먼
이국 땅 자경루에서 성근 비를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류에서 돛대 치는 것이 나의 일은 아니지만(中流擊楫非吾
事) 하늘 가에 떠가는 범려의 배 멍하니 바라본다오(閑望天涯范蠡舟)’라
고 노래하여, 자신과 현실과의 관계를 반추하면서 시를 마친다.

‘강을 건너다가 중류에서 돛대를 치며 맹세하기를 내가 중원(中原)을
깨끗이 소탕하지 못한다면 이 강을 다시 건너지 않겠다’고 결연한 기상을
보인 예주 자사(豫州刺史) 조적(祖逖)처럼 원나라 지배하에 있는 고려를
위해 결연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하지만, 월왕(越王) 구천을 도와 오(吳)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고소대(姑蘇臺)에 있던 서시(西施)를 데리고 공명
을 피하여 오호(五湖)에 배를 띄우고 한가하게 월나라를 떠나는 범려(范
蠡)의 모습을 꿈꾸어본다는 것이다. 충선왕을 호종하면서 원나라에서 지
내면서 원나라에 대해 결연한 대결 의지를 보일 수는 없는 처지이지만,
원나라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꿈꾸는 자신의 내면을 여행 체험을 빌어 표
현한 것이다.³⁹⁾

<오강(吳江)>이란 작품에서는 먼저, ‘십년 동안 먼지 굴에서 머리 숙
였지만(十年俯首塵土窟) 강호를 꿈꾸면서 근심을 잊어오던 중(夢想滄
洲欲愁絕) 오강의 경치가 천하에 드물다는 말을(吳江清勝天下稀) 조맹
부에게 처음 들었었다(我初聞之趙松雪)’고 고백한다. 원나라에 들어와서
머리를 숙이고 살면서 그러한 삶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중 당대 최
고의 문인 조맹부에게서 오강 경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오강에 이르러 ‘배에다 술을 싣고 미인을 데리고 가서 노니(滿

39) <다경루(多景樓)에서 권일재(權一齋)를 모시고 옛사람의 운에 따라 함께 짓다>, 『의
재난고』 제1권 시(詩).

船載酒攜佳人) 예쁜 웃음 맑은 노래에 이와 불도 아름답다(巧笑清歌玉齒頰)며, 관능적인 선유락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그리고, 화려한 ‘수홍교 밑에는 백구가 날고(垂虹橋下百鷗飛) 흰 물결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사면을 들렀다(白波接天天四垂)’고 인공과 자연이 어울려진 오강의 환상적인 풍광을 묘사한 뒤, 그러한 풍광 속에서 ‘술잔을 멈추고 달뜨기를 기다리면서(停杯更待江月上) 배가 가는 대로 밤새도록 즐길 수 있으니(信棹自喜風帆遲) 잠삼 형제와 두보가 미파에서 놀던 일은 어린 애 장난에 불과하다(却憶岑參與杜甫 漢陂之樂眞兒嬉)’고 오강의 선유락을 노래한다.⁴⁰⁾

이 시에서 이제현은 자신이, 원나라 지배 아래서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벗어나길 꿈꾸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충선왕을 호종하면서 조맹부와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만권당에서 지내다가 강남에 이르러 선유락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의 뱃놀이에 비하면 잠삼이나 두보의 미파에서의 뱃놀이는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하다고 노래하여 스스로를 당나라의 시인들과 견주는 호기를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최치원이 변방의 지식인으로서 강남을 유락(流落)하면서 자의식을 노래했던 데 비하면, 이제현은 스스로의 능력을 자부하면서 당대 중국의 지식인 문화의 정수 그리고 강남의 진수를 마음껏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사행 체험과 강남 형상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신의 자격으로 강남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겪은 강남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다. 송과 교류가 이루어지던 고려 전기 이전

40) <오강(吳江)에서 또 일재(一齋)를 모시고 소동파(蘇東坡)의 운에 따라 짓다>, 『익재난고』 제1권 시(詩).

의 자료는 극히 희소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 명과 교류하던 시기의 자료는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했을 정도로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 전기의 일부 남은 자료와, 고려 후기 및 조선 초기의 자료 가운데 정몽주와 정도전의 일부 사행시(使行詩)를 추출하여 그들 속에 그려진 강남 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 전기 송나라와의 외교는 개경과 북송의 수도인 개봉(開封) 사이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반도와 등주를 잇는 직항로를 이용하였지만, 1074년 이후에는 요나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남방 항로를 경유하여 양자강과 운하 그리고 회수를 잇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사행 체험은 곧 강남 체험을 뜻하는 것이었다.

고려 전기의 사신으로서 중국에서 문명을 떨친 대표적인 문인으로 박인량을 들 수 있다. 박인량(朴寅亮;?-1096)이 강남 체험을 노래한 것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주 귀산사를 지나며(使宋過泗州龜山寺)>와 <오자서 묘>(伍子胥廟)이다.⁴¹⁾ 『고려사 절요』에는 예부시랑이었던 박인량이 송나라 원풍 3년(1080) 호부상서 유흥(柳洪)과 함께 송 나라에 가서 약재를 내려준 데 대해 황제에게 사례하고 방물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이들이 장강에 이르러 폭풍을 만나서 가져갔던 공물 태반을 망실하였지만 황제가 고려왕에게 칙서를 내려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여 왕이 이들을 석방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사행을 갔던 김근(金覲;김부식의 부친)과 박인량의 시문을 모아 『소화집』(小華集)을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²⁾ 그런데 최근의

41) 巉巖怪石疊成山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 浪底 磬聲搖月落雲間 門前客棹
洪濤疾 竹下僧碁白日閉 一奉皇華堪惜別 更留詩句約重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주 귀산사를 지나며(使宋過泗州龜山寺)>, 『동문선』 제12권 칠언율시(七
言律詩).

연구에 의하면 박인량은 문종 25년(1071)에 그가 처음 서장관(書狀官)의 신분으로 북송에 가서 시문 창작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주 귀산사를 지나며(使宋過泗州龜山寺)>는 일차 사행에서 지은 것이고, <오자서 묘>(伍子胥廟)와 <배에서 밤에 시를 읊다(舟中夜吟)>는 2차 사행 때 지은 것이라 한다.⁴³⁾

1차 사행 때에는 천주(泉州) 사람 황신(黃愼)이란 자가 고려에 와서 길을 인도하여 사명(四明:지금의 영파) 지역을 통해 해안에 상륙하려 했는데, 해풍에 표류하게 되어 통주(通州; 지금의 강소성 남통시)의 해문현(海門縣)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먼저 통주 태수에게 글을 지어 보내기를, ‘북두성을 바라보고 뗏목에 올라 처음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원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잃어 선향에 잘못 들어왔다(望斗極以乘槎, 初離下國, 指桃源而迷路, 誤到仙鄉)고 했다고 한다.⁴⁴⁾ 그리고 사주(四洲; 지금의 안휘성 임회시)에 있는 귀산사(龜山寺)에 들러 신종(神宗)의 축수재(祝壽齋)를 지내고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주 귀산사를 지나며(使宋過泗州龜山寺)>를 썼다고 한다.

통주 태수에게 글을 쓴 사람이 분명치는 않지만 서장관의 직임으로 사행을 했다는 걸 고려하면 아마 박인량이 지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위태로웠던 자신들의 사행과 표류 체험을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의 이미지를 빌어 와 ‘도원을 향해 가다가 선향에 잘못 들어왔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강남 체험에 대

42) 至浙江 遇颶風 幾覆舟 及至宋 計所貢方物 失亡殆半 帝勅王勿問 王乃釋洪等有金觀者 亦在是行 宋人見寅亮及觀所著尺牘·表狀·題詠 稱嘆不置 至刊二人詩文 號小華集.

43) 정선모, 「북송사행을 통해서 본 박인량의 문학사적 위상」, 『한국 한문학 연구』 46집, 2010, 5-57쪽.

44) 王闢之, 『澠水燕談錄』 卷9.

한 기대와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의 시문을 모아『소화집』이라는 문집을 간행해 주었다고 한 걸 보면, 그는 강남의 경승마다 이전의 시인 목객들을 의식하면서 풍경과 역사를 노래하여 마음껏 시재를 뽑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사주(四洲)의 귀산(龜山)은 홍택호(洪澤湖)의 서남쪽으로 회수(淮水)가 흘러드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삼면의 석벽 주위로 호수가 둘러 있어 마치 거북이 회하에서 나와 호수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지녔다고 한다. 산위에는 절과 탑이 있는데, 한유(韓愈; 768-824)는 <징관 스님을 보내며>(送僧澄觀)라는 시에서 “난간과 기둥이 반공에 붉으니(欄柱傾扶半天赤) 불타고 씻긴 자리에(火燒水轉掃地空) 우뚝 솟아 삼백척이라(突兀便高三百尺) 못 바닥에 잠긴 그림자 용도 놀라 도망가고(影沈潭底龍驚遁) 대낮의 푸른 하늘엔 구름도 비껴가네(當晝無雲跨虛碧)”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도(蘇軾; 1036-1101)도 자신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풍량을 만나 표박을 했는데 이 귀산사 승가탑에 빌고 난 뒤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내용을 담은 <사주승가탑>(泗州僧伽塔)이란 시를 지은 적이 있다.⁴⁵⁾ 박인량은 신종(神宗)의 축수재(祝壽齋)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이 귀산사를 들렀겠지만, 실제로는 소동파처럼 자신들이 겪은 바와 같은 풍량을 만나지 않게 빌면서, 명승을 구경하고 그 감흥을 시로 표현해 보고자 귀산사에 들렀을 것이다.

45)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최사랑 일행의 사절단이 귀국한 문종 31년(1077)에는 소식의 시문집 일부가 이미 고려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박인량이 다음과 같은 소동파의 시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我惜南行舟繫汴 逆風三日沙吹面 舟人共勸禱靈塔 香火未收旃脚轉 回頭頃刻失長橋 却到龜山未朝飯 至人無心何厚薄 我自懷私欣所便 耕田欲雨刈欲晴 去得順風來者怨 若使人人禱輒遂 造物應須日千變 今我身世兩悠悠 去無所逐來無戀 得行固願留不惡 每到有求神亦倦 退之舊云三百尺 澄觀所營今已換 不嫌俗土汚丹梯 一看雲山繞淮甸” 정선모, 『소식 문학 초기 수용 양상고』, 『동방한문학』 36집, 2008, 273-321쪽.

그런데, 박인량은 두련(頭聯)에서 “험한 바위 기괴한 돌 첩첩이 쌓여 산을 이루고(巉巖怪石疊成山) 산 위의 절은 사방이 물로 둘러쌌네(山有蓮坊水四環)”라고 하여 호수 위에 우뚝 솟은 바위산과 그 위에 지은 절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함련(頷聯)에서는 “탑 그림자는 강에 거꾸로 떨어져 물결 아래 일렁거리고(塔影倒江翻浪底) 경쇠 소리는 달빛을 흔들며 구름 사이로 떨어지네(磬聲搖月落雲間)”라고 노래하여, 아슬한 바위 절벽 위에 삼백 척 높이의 우뚝 솟은 탑 그림자가 곧바로 호수에 떨어져 일렁거리는 장관과 경쇠 소리에 흔들리듯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달빛의 고요를 대조시켜 장쾌하면서도 섬세한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그리고 경련(頸聯)에서는 “문 앞 나그네는 큰 파도를 헤치노라 바쁜데(門前客棹洪波疾) 대나무 아래 스님은 바둑을 두며 한 낮에 한가롭네(竹下僧褰白日閑)”라고 노래하여, 한 걸음 산문 아래 일렁이는 호수의 파도와 산문 안의 고요, 그리고 표류 체험까지 하면서 파도를 헤치고 사행 길을 달릴 밖에 없는 자신의 위태로운 환로(宦路)와 한가롭게 바둑을 두면서 고요하게 불도를 닦는 선승의 처지를 대비하여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그리고 미련(尾聯)에서는 “어떻게 받은 사행길이라 석별을 참지만(一奉皇華堪惜別) 시구를 남겨두어 다시 오를 걸 기약하네(更留詩句約重攀)”라고 노래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음, 꼭 귀산사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위태로운 세파를 벗어나 산방에 올라 한가롭고 고요한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자서 묘>(伍子胥廟)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차 사행에 지은 시라고 한다. 『보한집』(補閑集)에는 “절강(浙江)지방에 이르렀을 때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었는데, 오자서(伍子胥)의 사당이 강가에 있는 것을 보고 시를 지어 조문하기를 掛眼東門憤未消 碧江千古起波濤 今人不識前賢

志 但問潮頭幾尺高”라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어서 배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항주의 전당강은 조수가 사납기로 유명한 곳이다. 가장 심할 때가 칠팔월의 사리 조수인데, 심할 때는 8-9미터나 되는 파도가 일어서 일대가 범람하고, 많은 피해를 내기도 한다고 한다. 호안 공사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지금도 전당강 하류 곳곳에 경고 문구가 씌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풍랑으로 표류하여 봉물의 대반을 잃어버린 박인량 일행이 이러한 전당강 조수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된다.⁴⁶⁾

그렇기 때문에 박인량은 전당강의 조수를 보고 ‘오왕 부차(夫差)가 백비(白髀)의 참소를 받아들여 오자서에게 촉무검(屬鏤劍)을 주어 자살하게 하자, 오자서가 자기 무덤에 가래나무(梓)를 심어 왕의 관재로 쓸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눈을 빼어 동쪽 문 위에 걸어놓아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하라면서 목을 찢어 죽였으며, 그 말을 들은 부차가 말가죽 부대에 넣어 강에 버리니, 사람들이 강가에 사당을 세우고 서산(胥山)이라 하였다’는 『사기』〈오자서 열전〉의 내용을 떠올리고, 오자서 묘에 시를 지어 조문하였던 것이다.⁴⁷⁾ 요(遼)가 압록강 동쪽 땅을 요구하자 표문을 올려 요구를 철회하게 하고, 문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재를 보내준 신종(神宗)에게 왕을 대신해 봉물을 가지고 가던 박인량이, 전당강의 조수와 오자서묘를 보고, 새로이 충(忠)을 다짐하면서, 오자

46) 고려사절요에 보면 ‘송 신종이 고려 문종의 병을 위해 의원과 약재를 보내준데 대해 (1078, 문종 32) 호부 상서(戶部尙書) 유홍(柳洪)과 예부 시랑(禮部侍郎) 박인량(朴寅亮)을 보내어 사온하였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어 조공할 토산물의 절반 가량을 잃어버렸으므로 홍 등이 표문을 올려 자신들의 죄상을 기록하여 보고하니, 칙서를 내려 위로하고 안심시켰으며 황제가 의관(醫官) 마세안을 보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47) <오자서 묘(伍子胥廟)>, 『동문선』 제19권, 칠언절구(七言絕句).

서에게 자신의 충의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이다. 비슷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제현은 오강(吳江)에서 선유락을 즐기고 호기를 뿔내며 고소대(姑蘇臺)의 서시(西施)와 범려(范蠡)를 노래한 데 반해, 박인량은 오자서를 노래하는 걸 보면, 그들의 처지와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사 절요』 1127년 5월 조에는 “김부식(金富軾) 등이 송 나라의 명주(明州)까지 갔다가, 마침 북송의 수도 변주(汴州)에 금(金) 나라가 들어와서 수도에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명주는 지금의 절강성 영파(寧波)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의 강남 체험은 영파에 국한된 것이다. 이 때의 체험을 형상화한 시 세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가운데, <송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산을 바라봄>(自宋回次和書狀秘書海中望山)이라는 차운시 2편은 그가 자신의 강남의 사행 체험을 얼마나 환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첫 번째 시에서는 ‘자신이 탄 배가 며칠 만에 아득한 바다를 건너온 사실(雲帆數日出冥冥)을 생각하면서,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도를 닦다가 천년 후에 고향에 돌아와 화표주(華表柱)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는 정령위(丁令威) 고사가 오히려 우습다(千載歸來却笑丁)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강남 체험을 하백(河伯)이 해약(海若)을 만나 자신이 바다를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井蠶)나 얼음을 모르는 여름 벌레(夏蟲)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우쳤다는 장자 추수편의 『장자』 <추수>(秋水)편의 고사에 비유하여, 좁은 고려 땅에 갇혀 있다가 바다 건너 중국의 강남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早知海若觀難測) 그것이 이처럼 짧게 끝날 줄은 몰랐다(方恨天門夢易醒)고 아쉬워한다.⁴⁸⁾

48) 김부식, <송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산을 바라봄(自宋回次和書狀秘書海中望山)>, 『동문선』 제12권, 칠언율시(七言律詩). 변종현 교수는 千載歸來却笑丁 雲帆數日出冥冥

이어서 두 번째 시에서는 멀리 배 위에서 바라본 강남의 산천을 ‘과도에 들이 붓는 달빛은 은하수가 하얗게 쏟아지는 듯하고(月注波濤銀瀉白) 구름 비긴 섬들은 푸른 눈썹을 그려놓는 듯하다(雲橫島嶼黛凝靑)’고 몽환적으로 묘사한 뒤, “군평이 어젯밤 별자리 점을 쳤다면(君平昨夜占星象) 은하에 객성이 들른 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應怪河間有客星)”이라 노래한다. 달빛 쏟아지는 바다와 그 너머 아스라하게 사라져 가는 강남이 지상 세계와 연결된 은하계처럼 신비스럽다면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어느 곳에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엄군평으로부터 자신이 그 사람을 만나던 날 객성이 견우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은하수를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박물지(博物志)』의 고사처럼 자신이 은하수를 방문했던 것처럼 여겨진다고 노래한 것이다.⁴⁹⁾

<송나라 명주호심사에서 모수의 운을 차하여(宋明州湖心寺次毛守韻)>라는 시는 김부식 일행이 명주에 머물면서 지금의 영파의 월호(月湖) 변에 있었던 호심사(湖心寺)의 탑에서 개경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이다.⁵⁰⁾ 먼저 첩첩이 쌓인 강산의 수평적 원경과 반공에 우뚝 솟은 탑의 위

早知海若觀難測 方恨天門夢易醒 변종현 교수는 “早知海若觀難測 方恨天門夢易醒”이 ‘장자의 해약(海若)과 하백(河伯)의 만남, 꿈에 아홉 겹으로 된 하늘 문에 다다랐으나 여덟 문만 통과하고 꿈을 깨서 팔주 도둑이 되었다는 진(晉)나라 도간(陶侃)의 고사를 들면서 김부식이 사행으로 돌아오는 뱃길이 그만큼 험난하고 자신의 포부가 크지만 돌아가야 하는 현재의 처지를 한스러워 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장자의 추수편의 해약과 하백의 만남의 의미, 그리고 뒷 시에 이어지는 박물지의 은하계 방문 고사를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변종현, 『김부식 한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13호, 2002, 176-190쪽.

49) 김부식, <송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장과 비서의 시, 바다에서 산을 바라봄을 차운하며(自宋回次和書狀秘書海中望山)>, 『동문선』 제12권, 칠언율시(七言律詩).

50) 江山重複望難窮 更構層樓在半空 簷外蒼蒼河漢逼 階前浩浩海潮通 片帆孤鳥千家外 疏雨斜陽一氣中 想與衆心同所樂 騷人誰諷大王風 김부식, <송나라 명주호

용을 대조시키고, 처마 끝에 펼쳐진 푸른 은하수와 눈앞에 넘실거리는 드넓은 바다를 대조시켜 광활한 명주의 원경을 묘사한 후, 시선을 근경으로 돌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인가의 밖에서 움직이는 조각배와 외로운 새, 그리고 성근 비와 빗기는 저녁 햇살을 노래한다. 그리고 막으로 고국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풍간하는 역할을 맡아 임금이 못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시기 고려는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이른바 서경파가 득세하여 그들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고 인종(仁宗)은 서경으로 빈번히 행차를 하였다. 김부식은 이른바 개경파의 수장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들을 견제했는데, 사행에서 돌아온 후 이들과의 새력 대결을 벌여 결국 7년 후인 1135년에 선봉에 서서 이들 서경파를 토벌하였다. 김부식은 사행길에서 명주의 산천과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의 뜻과 달리 서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종(仁宗)의 처사를 송옥(宋玉)의 시를 빌어 대왕풍(大王風)으로 비유한 뒤, 스스로 임금과 백성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도록(想與衆心同所樂) 풍간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라(騷人誰諷大王風)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 시랑의 ‘매잠 유감’에 화답하여(和副使侍郎梅岑有感)>는 짐작컨대는, 매잠(梅岑)에서 개경으로 회귀하면서 사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귀국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부사(副使)의 시에 차운하여 스스로 또는 일행을 위로하면서 지은 시로 보인다. 절강성 정해현(定海縣) 동편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섬은, 신라 상인이 관음상을 고국으로 가져가려다 좌초하여 이곳에 안치하였다는 불공거관음전(不肯去觀音殿)이 있는 곳으로, 반도인이 남방 항로를 택할 때 경유하는 핵심적인 거

심사에서 모수의 운을 차하여(宋明州湖心寺次毛守韻)>, 『동문선』 제12권, 칠언율시(七言律詩).

점이다. 김부식은 사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명주에서 이곳을 경유하면서 사행(使行) 전체를 돌아본 것이다.

먼저 중국의 변방에서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면서(中華地盡水茫茫) 돛을 펼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행의 처지를 설명한 뒤(百尺張帆指故鄉) 광활한 하늘과 바다 위에 뜬 해와 달(天闊波濤浮日月) 비운 뒤 산에 걸려 있는 운무(雨餘雲霧襯巒岡)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여행에 지친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한 물거품(黃昏沸沫驚心白)과 여행 길에서 느꼈던 근심을 식혀주는 듯한 한 여름의 그늘(朱夏濃陰着面涼)을 노래한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 임금께 복명할 것에 대해 기쁨이 일지만(雖喜王庭行復命), 아울러 천자가 있는 곳의 양양한 즐거움도 생각한다(猶思帝所樂洋洋)면서 시를 마친다. 미련(尾聯)에 표현된 이러한 시인의 이중적 심사는 역설적으로 김부식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나를 짐작케 해준다.⁵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는 송나라에는 금나라가 침범하여 수도를 임안(臨安; 항주)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위급한 시기였으며, 고려에는 서경과가 득세하여 자칫하면 김부식 자신이 몰락할 수도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부식은 사행의 목적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복명을 해야 하는 처지로서, 앞으로 금나라와 송나라에 대해 외교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개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만감이 오갔을 것이다. 이러한 김부식은 이러한 사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역설적으로 ‘복명 기쁨’과 ‘제소의 즐거움’(帝所樂)으로 표현한 것이다.

원나라 지배 시기에는 연경(燕京)으로 사행을 했기 때문에 강남 지역

51) 김부식, <부사 시량의 ‘매잠 유감’에 화답하여(和副使侍郎梅岑有感)>, 『동문선』 제 12권, 칠언율시(七言律詩).

으로의 사행 체험은 나타나기 어려웠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 관인으로서 체류하면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사행 체험은 건국 초 명나라가 남경에 도읍을 정했던 1368년부터 북경으로 도읍을 옮겼던 1421년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 조선과 명나라는 앞서 살펴본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와 달리, 원나라와의 관계나 요동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명나라 수도 남경까지의 사행로는 육로로 산동 반도까지 북방 항로를 경유하여 회수로 들어가 운하를 이용하거나, 육로로 연경까지 간 뒤 경향 운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경으로의 사행 길은 험난한 여로를 거쳐야 했다. 한편, 고려 또는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는 북원과의 관계 또는 요동 지방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해 험난한 여로보다도 긴장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사행 체험을 다룬 글에는 북방 체험과 강남 체험이 뒤섞여 나타날 뿐 아니라, 사행 길에서 느낀 객수를 다룬 시, 의례적으로 황도(皇都)를 예찬하는 시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 봉사시를 남긴 대표적 문인들로 정몽주, 김구용, 이송인, 정도전, 권근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명나라에 대한 시각이 달랐던 정몽주와 정도전의 시 몇 편을 추출하여 그들 시에 나타난 강남 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몽주는 명과 고려의 관계가 지극히 어려웠던 시기에 네 번이나 사신으로 남경에 다녀왔다. 1372년 명나라가 파촉을 정벌한 것을 축하하고 자체들의 입학을 청하기 위해 홍사범(洪師範)을 따라갔다 오다가 폭풍을 만나 홍사범은 익사하고 겨우 돌아왔으며, 두 번째는 1384년 정도전과 함께 하성절사로 다녀왔다. 그리고 1386년 입경하여 세공 감면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돌아왔으며, 1387년 입경하여 조빙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남아있는 정몽주의 봉사시(奉使詩) 가운데 일부는 첫 번째

사행에서 지어진 것이지만, 세공을 감면 받고 돌아온 1396년 사행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⁵²⁾

정몽주는 먼저 <양자강(楊子江)이란 시에서, ‘초나라를 뚫고 와 오나라를 삼킬 듯한 기상의 웅건함은(貫楚吞吳氣象雄) 이제는 사해가 이곳을 조종으로 삼는 것 같네(如今四海此朝宗) 흐름을 거슬러 강의 근원을 물어 간다면(泝流若問江源去) 곧바로 아미산 제일봉에 이르겠지(直到峩眉第一峯)’라고 노래한다. 이를 통해 사해의 근원처럼 망망하게 펼쳐진 장강의 웅건하고 도도한 흐름에서 느낀 그의 위압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⁵³⁾ 장강을 보면서 느낀 이러한 감흥은 새로 건국된 명나라의 수도가 자리한 강남 자체에서 느낀 위압감으로 이어진다. <양자강 선상에서(楊子江船上)라는 시에서는 ‘왕정의 바름을 축하기 위해 몸을 배에 싣고 와(身隨海舶賀王正) 길이 강남에 드니 눈이 홀연히 밝아지네(路入江南眼忽明) 땅과 하늘이 열려 새로운 중심이 열리고(地關天開新建極) 옛 부터 명성을 들어온 용이 서리고 호랑이 웅크리고 있네’(龍盤虎踞舊聞名)라고 노래하여, 남경에 자리 잡은 명나라의 도읍에 가까워지면서 느낀 위압감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강남의 수려하고 광활한 풍광과 새로 건국된 명나라의 위용에 압도되어, 명나라의 수도가 위치한 강남을 용과 호랑이가 웅거한 세계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 예찬한 것이다.⁵⁴⁾

<입경(入京)>이란 시에는 이러한 감흥이 더욱 고조된 형태로 노래된다. ‘강남은 형승지라(江南形勝地) 천고의 석두성에(千古石頭城) 푸른

52) 안장리, 『여말선초 사대부의 봉사시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도은문학연구』3집, 2009, 31-52쪽.; 엄경흠, 『정몽주와 권근의 사행시에 표현된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181-214쪽.; 엄경흠, 『정몽주의 명사행시에 대한 고찰』, 『석당논총』17집, 1991, 247-270쪽.

53) 정몽주, <楊子江>, 『圃隱先生文集』卷之一, 詩.

54) 정몽주, <楊子江船上>, 『圃隱先生文集』卷之一, 詩.

물이 금궐을 두르고(綠水環金闕) 청산은 옥경을 감쌌네(青山繞玉京) 한 사람이 여섯 별의 가운데 자리하니(一人中建極) 만국이 이에 알현하여 바르게 되네(萬國此朝正) 나 역시 배를 타고 이르니(我亦乘查至) 완연히 천상에 온듯 하네(宛如天上行)'라고 노래하여, 명나라 수도 남경의 아름다운 형세와 그곳에 도움을 한 태조 주원장과 명나라를 예찬하면서, 마치 자신이 배를 타고 천상에 이른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한다.⁵⁵⁾

이처럼 고조된 감흥은 <황도(皇都)>에서 절정에 이른다.⁵⁶⁾ 먼저 첫수에서는 '목묵한 황도의 사문이 열려있으니(皇都穆穆四門開) 멀리서 온 나그네 관광을 하고 웅장한 느낌이 드네(遠客觀光壯懷) 날씨는 따뜻한데 아득한 궁궐에 상서로운 구름 걸렸고(日暖紫雲低魏闕) 늦은 봄 관청 거리에는 푸른 버드나무가 늘어섰네(春深翠柳夾官街) 비단옷과 오사모를 쓴 공자들(錦袍公子烏紗帽) 꼭두서니 빛 소매에 붉은 수놓은 신발 신은 여아들(舊袖女兒紅綉鞋) 손님 맞는 여관은 아득히 높아 천상에 닿을 듯(賓館岹嶢近天上) 목란 배가 진회에 머물수 없게 하네(蘭舟不用泊秦淮)'라고 노래하여, 자신이 거처온 진회의 여러 도시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변화한 남경의 풍경을 보면서 느낀 감흥을 드러낸다.

이어서 두 번째 시에서는 정몽주가 병인년 4월에 사신으로 가서 회동관에 있는데 23일에 갑자기 입궐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황제를 알현하니 해마다 바치는 세공을 감하여 주어 황제의 은혜에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지어 그 감격을 표현한다는 주를 달고, 그 감격을 시로 표현하면서 '이제 고려가 황제의 힘을 입어(從此三韓蒙帝力) 경전착정하면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耕田鑿井揚安眠)고 노래한다.⁵⁷⁾ 세공을 줄

55) 정몽주, <入京>, 『圃隱先生文集』 卷之一, 詩.

56) 정몽주, <皇都>, 『圃隱先生文集』 卷之一, 詩.

57) 內人日午忽傳宣 走上龍墀向御筵 聖訓近聞天咫尺 寬恩遠及海東邊 退來不覺流

이기 위해 나선 사행의 목적을 달성한 데 대한 안도감과 감격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사행길은 이처럼 마냥 동경과 감격적 감흥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고단한 여행길이기 하다. 그러기에 <강남류>(江南柳)라는 시에서는 ‘강남의 버들 색은 해마다 푸르러지지만(江南柳色年年好) 강남의 나그네는 언제나 돌아가리(江南行客歸何時) 망망한 창해에 물결이 만 길(蒼海茫茫萬丈波) 고향은 멀리 하늘 끝에 놓여 있네(家山遠在天之涯)’라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객수를 노래하기도 한다.⁵⁸⁾

정도전은 1384년 정몽주와 함께 서장관으로 남경에 다녀왔고, 1390년에 성절을 하례하고 이성계가 명나라를 침범한다는 무고를 밝히고 돌아왔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1392년에는 계품사로 조선 창업의 전말을 보고하기 위해 명나라에 다녀왔다.⁵⁹⁾ 이 때 정도전이 명나라에 사행을 간 또 다른 목적은 요동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명나라에서도 이를 간파하고 귀국길에 산해위(山海衛)에서 “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전도 불사하겠다(好便好 不好來搶一場)”고 한 말을 문제 삼아 그의 압송을 즐기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⁶⁰⁾ 명나라에 대한 정도전의 이러한 도발적인 태도는 <고우를 지나다(過高郵)>라는 시를 통해서도 확

雙涕 感激唯知祝萬年 從此三韓蒙帝力 耕田鑿井揚安眠 臣夢周於洪武丙寅四月 奉國表在京師會同館 是月二十三日 上御奉天門 內人傳宣促臣入內 親奉宣諭 教誨切至 因將本國歲貢金銀馬布一切蠲免 不勝感荷聖恩之至 謹賦詩以自著云

58) 江南柳江南柳 春風裊裊黃金絲 江南柳色年年好 江南行客歸何時 蒼海茫茫萬丈波 家山遠在天之涯 天涯之人日夜望歸舟 坐對落花空長嘆 空長嘆但識相思苦 肯識此間行路難 人生莫作遠游客 少年兩鬢如雪白 정몽주, <江南柳>, 『圃隱先生文集』卷之一, 詩

59) 안장리, 『여말선초 사대부의 봉사시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도은문학연구』3집, 2009, 31-52쪽.

60)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 관계』, 『역사비평』 50집, 200 0.2, 299-316쪽.; 한명기, 『원 명교체 명청교체와 한반도』, 『세계정치』 제30집 2호, 2009년, 61-97쪽.

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그는 높은 성채가 위태롭게 호수 물에 비껴 그림자 지는 모습을 보고(數堞危城傍水斜) 명나라에 사행을 가던 자신이 노를 멈추고 감탄을 하면서(客來停棹爲咨嗟) 가련한 진승과 오광이 진나라를 무너뜨려 유방에게 넘겨주었다(可憐勝廣成何事 輸與劉郎作漢家)고 탄식을 한다.⁶¹⁾

이 지역은 넓게 보면 진승 오광이 반란을 일으킨 대택향(大澤鄉; 지금의 안휘성 기현)과 그리 멀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 무렵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고우(高郵)는 특별한 곳으로 각인된 곳이다. 명나라가 건국되기 직전 '장사성(張士誠)이 난을 일으키자 탈탈(脫脫)이 고우성(高郵城)을 공격하면서 유탁(柳濯), 염제신(廉悌臣), 최영(崔瑩) 등 고려군을 동원하였는데, 고려 군사는 육합성(六合城)을 함락시키고, 회안로(淮安路)로 이동하여 적을 막았는데, 이때 이권(李權)·최원(崔源) 등이 죽고, 최영(崔瑩)은 힘껏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⁶²⁾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이라면 이 고우(高郵)를 지나면서 특별한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고려 사신들이 사행 길에서 고우를 지나면서 대체로 시를 지은 걸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⁶³⁾ 그 가운데 권근은 <고우주

61) 정도전, <고우를 지나다(過高郵)> 국역, 『삼봉집』 제2권, 칠언절구(七言絕句).

62) 고려사절요 26권 공민왕 1년(1354) 11월.

63) 정몽주는 <고우호(高郵湖)>와 <고우성(高郵城)>, 그리고 <고우호의 배안에서(高郵湖舟中)>이라는 시를 지었으며, 이승인은 <고우호에 배를 머물고 정몽주와 염종수와 하륜과 정도전을 생각하다(舟次高郵湖憶圃隱蒼庭浩亭三峯)>는 시와 <배를 타고 고우호에서 출발하여 범광과 백마의 두 호수를 지날 적에 동정과 포은 두 분 선생을 생각하며 짓다(舟行自高郵湖過范光白馬二湖奉懷東亭圃隱二位先生)>라는 시를 지었다. 그리고 권근은 <고우주(高郵州)를 지나면서(過高郵州)>와 <다시 고우성을 지나며>(重過高郵城)를 지었으며, 김구용은 <고우주에서 달가의 운에 차

(高郵州)를 지나면서>라는 시에 “원(元) 나라 지정(至正) 갑오년 경에 못 도적이 이 성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승상(丞相) 탈탈(脫脫)에게 명령하여 토벌하게 하자, 그는 우리에게 청병(請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병을 파견하여 도와주었다”는 주를 달고, ‘사면이 긴 강이요 성은 백치나 되는데(四面長河百雉城) 용맹한 군사들은 우리 군의 날래움을 보고 탄복을 했네(熊羆皆服我師精) 고기 뱃속에 글을 넣어두고 여우 울음을 흉내 내게 한 진승 오광은 어디에 있나(漁書狐火今安在) 한 고조가 일어나 태평을 이룩했지(漢帝龍興致太平)’라고 노래했다.

그런데 정도전은 ‘가련한 진승 오광은 무슨 일을 이루었나(可憐勝廣成何事), 유방에게 왕권을 옮겨주어 한나라를 이루게 했네(輸與劉郎作漢家)’고 노래하여, 권근과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 이들 내용은 모두 진승 오광의 실패와 한고조 유방의 성공을 대조시킨 것으로서,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권근은 단순히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유방이 이들을 섬멸하여 한나라를 세운 것을 예찬한데 반해, 정도전은 반대로 그들이 유방이 한나라를 일으키는 빌미만을 제공했을 뿐이라면서 가련하게 여긴 것이다. 정도전은 이 지역에서 난을 일으킨 장사성을 진승 오광에 비유하여 그가 공연히 난을 일으켜 원나라의 세력을 꺾고 명나라의 건국에 빌미를 마련해주기만 했다고 보면서, 명나라의 건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정도전은 <범광호>(范光湖)라는 시에서⁶⁴⁾ 운하 주변의 풍경을 “물길로 종일토록 관선에 끌려가는데(水程終日曳官船) 양안에는 무수한 인가들이 이어지네(無數人家傍岸邊) 장정(長亭)을 다 지나도 넓은 들

운하여(高郵州次達可韻)라는 시를 지었다.

64) 범광호는 지금의 강소성 양주시 보응현에 있는 보응호의 옛 이름이다.

그대론데(過盡長亭仍曠野) 칩칩한 물결은 하늘에 닿아 있다(望來疊浪接高天)고 노래한다. 그리고 ‘몸은 쇠하여 보자기에 약은 떨어지지 않는 데(身衰裏裏長留藥) 객지 생활 오래 되니 주머니만 가벼워지네(客久囊中易罄錢)’라고 노래하여 오랜 사행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소한 공명은 어느 날에나 끝나치고(些少功名何日了) 흰 구름 깊은 곳에서 산을 대하고 즐까(白雲深處對山眠)라고 노래하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대명 관계 뿐 아니라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에서 느낀 피로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⁶⁵⁾

정도전의 경우 정몽주와 달리 봉사시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남아 있는 시들에서는 정몽주가 노래했던 장강이나 명나라의 황도에서 느끼는 위압감과 동경 그리고 강남의 형승에 대한 예찬적 정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도전의 대 중국 관 특히 명나라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 건국의 주조를 놓았던 정도전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복잡다단한 정치 정세에 골몰하면서 사행에 임했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강남을 마냥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반도인에게 ‘강남’은 제비가 겨울을 나고 돌아오는 아득히 먼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조선 시기에는, 박록주 창본 <홍부가>의 ‘제비 노정기’에서 한시 어구들을 조합하여 제비의 눈

65) 정도전, <범광호(范光湖)> 국역, 『삼봉집』 제2권, 칠언율시(七言律詩).

을 통해 강남 풍경을 조망하듯이,⁶⁶⁾ 문화 지리적 심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상상적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곳은 백거이(白居易)가 “강남은 좋은 곳(江南好)”이라 노래했듯이 아름다운 산수와 역사 문화 그리고 부와 세속적인 향락적 문화까지 아우른 공간이면서, 매처학자(梅妻鶴子)로 불리운 임포(林逋)가 서호의 고산에서 매화와 학을 벗삼아 살았던 은일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비(二妃)와 굴원으로 표상되는 충절의 공간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주자가 <무이도가>(武夷櫂歌)에서 노래하였듯이 이상적인 전원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기의 문학 작품에는 강남의 문화 지리적 심상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강남이 조선의 문인들에게는 직접 가볼 수 없는 상상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나라가 북경으로 도읍을 옮긴 1421년 이전에는 이들 공간이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역학 관계가 길항적으로 유지되던 치열한 역사적 공간이었으며, 새로운 문물의 수입 창구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유학생들과 구도자들에게 학문과 구도를 위한 ‘나루’ 같은 공간이었으며, 유망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 등등 높이 떠 두루 사면 살펴보니 서촉(西蜀)은 지척이요 동해(東海) 창망하구나. 축융봉(祝融峰)을 올라가니朱雀(朱雀)이 넘는다. 황우토(黃牛土) 황우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남(吳楚東南)가는 배는 북을 등등 울리며 어기야 어야 저어가니 원포귀범(遠浦歸帆)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대(水碧砂明兩岸苔)요 불승청원각비래(不勝淸怨却飛來)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 이점이 떨어지니 평사낙안(平沙落雁)이 이 아니냐.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과 상에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의로다 회안봉(回雁峰)을 넘어 황릉묘(皇陵廟) 들어가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絃彈夜月) 반죽 가지 쉬어 앉아 두견성 화답하고 봉황대(鳳凰臺)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류(鳳去臺空江自流) 황학루를 올라가니 황학 일거불부반(黃鶴一去不復反)에 백운천재공유유(白雲千載空悠悠)라 금릉(金陵)을 지내어 주사촌(酒肆村) 들어가 - 하략-

시기 ‘강남’은 마냥 이상적인 공간이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역학 관계와 개인적 처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에 따라 ‘강남’은 상이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십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업명을 받고 어린 나이에 대해를 건너 중국에 가서 학문을 연마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도, 타국의 지식인으로서 소외의식을 느끼면서 강남을 전전해야 했던 최치원에게, 그곳은 화려하지만 좀체 동화되기 어려운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왕자의 지위를 벗어던지고 아득한 이국에서 간난의 고행 끝에 지장보살의 칭호까지 들었던 김교각에게 그곳은 해탈에 이른 나루 역할을 한 곳이었다. 한편, 속국의 지식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문학적 역량을 뽐내면서 충선왕을 호종하면서 강남을 유력한 이제현에게 그곳은 빼어난 산수와 풍요로운 부를 내세우는 화려한 곳이면서도, 속국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곳이었다.

또, 사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풍랑을 뚫고 강남에 도착한 박인량이나, 김부식에게 그곳은 자신들의 험난한 사행과 대비되는 ‘선계’와 같은 고요한 땅, 또는 정치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 드넓은 세상이었다.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를 벗어나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행 길에 오른 정몽주에게 강남은 용과 호랑이가 웅거한 새로운 정치 문화의 중심으로 여겨졌으며,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 주체였던 정도전에게 그곳은 도전의 대상이며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참고문헌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종합DB

국역동문선,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 절요,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DB

한치윤, 해동역사, 한국고전종합DB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종합DB

권석환, 「중국 강남 지역 아회 문화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 연구』32집, 2006, 143-166쪽.

권석환 외, 『오월-오월 지역을 찾아서』, 다락원 2004, 1-255쪽.

권석환 외, 『형초-형초 지역을 찾아서』, 다락원 2004, 1-197쪽.

김문경, 「7-10세기 신라와 강남의 문화교섭」,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반도의 교섭』, 집문당, 1997, 129-154쪽.

김문경, 「나말 후삼국의 대 중국 해상무역」,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33-60쪽.

김병모, 「한반도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 『한국고고문화』 10,11합집, 1981, 55-78쪽.

김상홍, 「동아세아의 이상향 무릉도원」, 『동아시아 고대학』1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2006, 263-297쪽.

김석희, 「무릉도원 형상화의 유형과 그 함의」, 『국어국문학』148호, 국어국문학회, 65-88쪽.

김유철, 「위진남북조 시대 강남사회와 종족 문제」,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 교섭』, 집문당, 1997, 24-50쪽.

김종균, 「고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 수용의 심리적요인」, 『문학치료연구』2집, 문학치료학회, 144-167쪽.

김진영, 『중국 강남문학의 지역 특성』,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2005, 1-168쪽.

모소석, 「선진시대 중국 강남지역과 한반도의 해상교통」, 『한중 문화교류와 남방해로』, 국학자료원, 1997, 195-212쪽.

모소석, 「절강 지식묘의 형태와 한반도 지식묘의 비교」,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반

- 도의 교섭, 집문당, 1997, 189-202쪽.
- 박일용, 「〈주생전〉의 페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적 의미」, 『문학치료연구』26집, 2013, 161-203쪽.
-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35집, 2013, 139-168쪽.
- 안장리, 「여말선초 사대부의 봉사시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도은문학연구』3집, 2009, 31-52쪽.
- 엄경흠, 「정몽주와 권근의 사행시에 표현된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181-214쪽.
- 엄경흠, 「정몽주의 명사행시에 대한 고찰」, 석당논총』17집, 1991, 247-270쪽.
- 우쾌제,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1, 한국고소설학회, 1995, 263-302쪽.
-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49집, 2012, 241-274쪽.
- 이광규, 「마한사회의 인류학적 고찰」, 『마한 백제문화사』12, 1990, 63-75쪽.
- 이민홍,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람과문학의 일 양상-퇴계, 하서, 고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6집, 1982, 25-44쪽.
- 이민홍, 「사람과의 무이도가 수용에 대하여-도교적 전설과 제도적 부회」, 『도남학보』7,8집, 1985, 28-45쪽.
- 이유진, 「신라 하대의 시대 변천과 삼국의 정립」, 『8-10세기 신라 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5-29쪽.
- 이효숙, 「조선시대 무이도가 수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논집』43집, 2010, 243-266쪽.
- 정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논문, 2006, 1-310쪽.
- 정선모, 「북송사행을 통해서 본 박인량의 문학사적 위상」, 『한국 한문학 연구』46집, 2010, 5-57쪽.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1-387쪽.
-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학연구』36,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41-165쪽.
-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 관계」, 『역사비평』50집, 2000.2, 299-316쪽.
- 한명기, 「원명교체 명칭교체와 한반도」, 『세계정치』제30집 2호, 2009, 61-97쪽.

ABSTRACT

The experiences and the representations of Chinese Kang-nam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Park, Il-yong

As Baek, Rak-cheon(白樂天) referred "Kang-nam is great", Kang-nam was the ideal place which had beautiful landscape, history, culture, even wealth and pleasure for writers in the Joseon Dynasty. Kang-nam was also a place that represented loyalty through Yee-Bee(二妃) and Gool-Won(屈原). In Choo-Hee's(朱熹) <Mooyeedoga>(武夷權歌), Kang-nam was recognized as perfect place for rural life.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cultural and geometric variations of Kang-nam in a lot of works in the Joseon Dynasty is, this place was an imagery that the writers had never experienced.

However, before 1421 when Myung Dynasty transferred the capital to Beijing, Kang-nam was a historic place where the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 China had occurred. In addition, it had a function as a port to import new culture and as a way for learning and seeking the truth. It also was a place where keen life stories were going on. Therefore, Kang-nam was not always an ideal place. It was rather recognized differently for writers as the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 China, their attitude to China, and own situations.

Key Words Kang-nam, Choi, Chi-won(최치원), Kim, Kyo-gak(김교각), Lee, Je-hyun(이제현), Park, Yin-ryang(박인량), Kim, Boo-sik(김부식), Cheong, Mong-joo(정몽주), Cheong, Do-jeon(정도전)

논문투고일 : 2013. 11. 15

게재확정일 : 2013. 11. 26

